

# UNESCOAP 및 AIT와의 수자원 국제협력 추진



고 익 환 |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환경연구소 소장  
ihko@kowaco.or.kr

## 1. K-water 브랜드의 세계화

40여년간 국내 다목적댐과 광역상수도 건설·관리를 통하여 축적된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물서비스 전문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최근 새로 채택한 CI (기업이미지 통합화 전략)인 K-water 브랜드를 세계화해 나가는 국제적인 Network을 구축하고자 지난 6.20~21일 CEO (곽결호 사장)의 UNESCOAP 및 AIT 방문이 추진되었다.

## 2. UNESCOAP

국제연합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UNESCOAP: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효율적인 수자원관리와 통합적인 사회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1947년 중국 상하이에서 설립된 국제기구이다. 현재 62개 회원국이 활동 중인 UNESCOAP은 1966년에 아시아개발은행(ADB)을 설립하였으며, 아시아 지역 고속도로 및 철도 현대화 지원, UN 새천년 개발목표 (MDG: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추진국가들에 대한 지원, 자문 및 모니터링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 3. UNESCOAP과의 양해각서 체결

6.21일(수요일) 오전 태국 방콕의 UNESCOAP 본부에서 K-water 광결호 사장과 ESCAP 사무총장 간의 양 기관의 수자원 분야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서명식이 열렸다. 이 양해각서 체결을 통하여 K-water는 아시아·태평양지역 개발도상 국가들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통합수자원관리(IWRM) 촉진, 물 관련 재해에 대한 위기관리 능력 배양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적 실천사항 추진 등에 ESCAP과 공조하게 된다. 특히 수자원공사로서는 이번 ESCAP과의 협력 관계 구축을 계기로 이 국제기구의 62개 회원국 중 동남아 지역국가들에 대한 댐, 수력발전, 상수도, 농업용 관개 수리시설의 조사설계, 시공감리, 운영관리 분야 기술지원 및 사업 참여를 촉진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ESCAP과 공동으로 이 지역 국가들의 지속가능한 수자원 개발 및 관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훈련·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해당국가, 공공기관 및 민간부문 수자원 전문가 양성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양해각서 서명식 행사에서 한국수자원공사 광결호 사장은, 충분한 수자원의 확보와 물 관련 재해위기관리는 아시아 지역 대부분의 국가들이 당면한 가장 시급한 물 문제 중의 하나라고 강조하고, 수자원전문기관인 K-water가 친환경적 물관리 기술혁신을 통하여 필요한 양질의 물 공급과 가뭄과 홍수 등 재해방지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아태지역의 개발도상국가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UNESCOAP과 함께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림 1. K-water와 UNESCAP간 양해각서 서명식



그림 2. 양해각서 체결 후 기념촬영

#### 4. AIT와 교육연구 협력 추진

이미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국제적 교육기관인 아시아 공과대학 (AIT:Asia Institute of Technology)는 태국 방콕근교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4년 5월 한국수자원공사와 물 분야 기술교류, 전문인력 양성 및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2005년 10월 AIT Said Irandoust 총장, 금년 3월 AIT 부총장단의 수자원공사 방문에 대한 답방성격으로 대학측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이번 방문 일정(6.20일, 화요일)에서, AIT가 역대 노벨상 수상자들

을 초청해서 강연을 듣는 Milton Bender Auditorium에서 교수·학생 그리고 태국정부의 물관련 기관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의 환경정책과 수자원관리”를 주제로 한 광결호사장의 특별강연과 한국과 태국, 아시아 지역국가들의 물·환경·수도 문제에 관한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Said Irandoust 총장 등 교수진과 양 기관의 교육훈련, 연구개발과 관련한 인적교류의 활성화 등 협력강화방안도 논의되었다.

금년 여름에는 이미 AIT에서 선발된 대학원생 14명이 수자원공사의 연구원과 현업부서에 배치되어 단

기 인턴사원으로 실무훈련을 받고 있으며, 수공 직원이 AIT의 대학원 학위과정에 파견되는 등 상호 인적 교류가 시행되고 있다. 앞으로 AIT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동남아시아지역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현지 인적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가게 된다.

### 5. 향후 추진계획

이번 UNESCAP 및 AIT방문은 앞으로 이 기관들과 아시아 지역에서 실질적인 수자원 국제협력과 해외 사업 기반을 만드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금년 중에 수자원공사가 UNESCAP과 공조해서 수행할 기술협력은

- (1) 2006~2007 아시아하천유역지구 네트워크 (NARBO) 활동을 통한 아태지역 개발도상 국가들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통합수자원관리 기술확산 촉진,
- (2) 금년 9월 마카오에서 개최되는 ESCAP 태풍위 원회 연차회의의 활동 등에 의한 물 관련 재해 위기관리 능력 배양에 공동의 전략적 실천사항 추진,
- (3) 중앙아시아 지역국가들의 물관련 최대 현안 문제인 '댐 안전진단 조사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추진하게 됨에 따라 금년 하반기에 해당국가 댐 현장답사 및 기술진단 ('06. 9~10월), 차기 댐개보수사업 선정을 위한 국제연합 지역



그림 3. AIT Milton Bender Auditorium에서의 특별강연 장면

워크숍 ('06.11월, Almaty) 공동참가 등 크게 세 가지 분야이다.

AIT와는 향후 두 기관이 호혜가 되는 실제적인 장 단기 교육훈련과 공동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특히 현재 시행 중인 인턴사원제를 확대하여 수공이 아시아지역에서 프로젝트를 발굴할 경우 이 과업에 해당국가의 AIT 인력을 참여시키는 방안도 추진하며, 더 나아가 UNESCAP, ADB 등과 공조해서 아시아 지역의 IWRM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훈련도 같이 추진할 예정이다.

이러한 경험과 노력이 계승됨으로서 21세기에 K-water 한국수자원공사가 우리나라의 물, 환경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수자원 기술의 아시아적 가치'를 창출해 내는 세계적인 물전문기업으로 성장해 갈 것을 기대한다. 🌐